

동방신기, 활동 이상 기후..SM "이상 無"

입력 2009. 6. 26. 12:06 · 수정 2009. 6. 26. 12:06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오미정, 이지현 기자]



▲ 그룹 동방신기(노컷뉴스 자료사진)

그룹 동방신기의 활동에 이상 기후가 포착돼 가요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동방신기는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2009 썸머 SM타운' 재킷 촬영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동방신기 멤버들이 활동과 관련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 때문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도 국내에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요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사와의 계약이나 활동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속사 측에 불만을 제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하며 "동방신기의 현재 위치, SM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능력 등으로 볼 때 해체나 소속사 이탈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동방신기는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통해 데뷔 5년만에 아시아 정상 그룹으로 성장했다.

동방신기는 이같은 이상 징후에도 26일 태국 일정을 위해 정상적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27, 28일 양일간 '동방신기 더 써드 아시아 투어 콘서트 - 미로틱 인 방콕(THE 3rd ASIA TOUR CONCERT-MIROTIC in BANGKOK)' 공연을 연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본 콘서트 이후 태국 콘서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연습시간을 갖느라 재킷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것뿐이다"라며 "활동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

omj@cbs.co.kr ● [동방신기 새 日 싱글, 오리콘 주간차트 또 1위](#) ● [법원 "동방신기 '미로틱' 청소년유해매체물 아니다"](#) ● [동방신기 오리콘 1위 음반, 29일 국내 발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